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12월

선교편지 제 138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만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날씨가 추운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급증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시사철 무더운 이곳도 코로나 환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주요 도시 중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 섬 다바오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코로나 발생을 총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격일제 외출 허용, 주류 판매 금지 및 각종 모임 10명 이내로 제한, 통행증 소지, 마스크 뿐만 아니라 Face Shield도 착용해야 하는 등 그전에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중요 위치마다 군인과 경찰들이 차량, 오토바이, 일반 행인들을 검색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중한 벌금으로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로 한 가운데에 '관'을 설치해 놓고, 집에 머물지 않으면 관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더욱 더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디고스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확인서를 지참해야 매우 번잡한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가 비교적 적은 새벽 시간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디고스는 외적으로 확진자 수가 다바오보다 적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검사 횟수가 매우 적은 까닭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떨어진 다바오로 이동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자가 아니면 코로나 감염 여부도 쉽게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디고스도 다바오와 거의 동일한 코로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회적 거리와 나이 제한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잘 따르지 않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주민들이 매우 밀집된 환경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사회적 거리를 강요하고 예배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모임때마다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렘 33:6)**



11월 22일 주일,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온 교우가 예배를 위해 다양한 특별 순서를 준비하고, 또한 풍성한 만찬으로 기쁨을 더 했을 터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도의 모임을 원활하게 가질 수 없고,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수 감사절 예배는 한 명의 간증과 특별 순서 하나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사절 만찬은 간단한 간식과 쌀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11월 초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교회 건축 이후 첫번째 드리는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명찰을 목에 걸고 예배를 드리며 서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지 교역자들을 통하여 세심하게 준비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달리 감사주일 특별순서를 하기 원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 순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지 않아 좋아 할 줄 알았는데, 부서별로 서로 하겠다고 요청을 해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절충하여 마침내 디고스 교회도 아팔라야 교회도 한 가지가 아닌 세 가지의 특별 순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주중에 모여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달라는 기도를 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디고스 교회와 아팔라야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Pastor Appreciation Day'로 지정하고 현지 교역자들에게도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 들이 하나님은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를 표현하고, 이와 더불어 좋은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말씀과 양육으로 교인들을 돌 보아 주심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현지 교역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정성껏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여 그동안 수고한 교역자들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좋은 전통이 되어서,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추수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찬양과 경배에 더 기쁨과 힘이 있었고, 그동안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특별 순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간증은 듣는 모든 회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디고스 교회에서는 세 자녀를 장학사역을 통해 공부를 시킨 어머니가, 그리고 아팔라야 교회에서는 장학생 중의 한 명이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까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무쪼록 이 곳 열악한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사도행전의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기도와 풍성한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신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4)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